

**전일동향**

전일대비 8.30원 하락한 1,381.2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8.30원 하락한 1,38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한 1,385.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잇단 비둘기파 발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며 하락했고, 고점 부근 수출업체 매도 물량 출회와 역외 매도세도 하락에 힘을 보태며 1,381.2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4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9.07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5.50	1388.20	1378.30	1381.20	1384.20
엔화	942.73	944.34	935.95	939.07	-	
유로화	1619.92	1621.13	1604.81	1611.0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8	-6.7	-14.05
결제환율(수입)	-1	-5.82	-12.25	-23.7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연준 비둘기파적 인사 지명에...1,3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1.20) 대비 2.15원 상승한 1,38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연준 인사 지명 결과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반영하여 하락할 전망이다. 밤사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단기 이사직에 지명됐다. 당초 기존 연준 지배구조와 독립성을 비판했던 인물이 이사회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시장은 정치권 금리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연준 내 의견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는 현 연준 이사 중 대표적 비둘기파적 인물인 크리스토퍼 월러의 부상에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자극하며 환율 하락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제 발표된 반도체 관세 100% 부과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 보유 시 면제될 수 있다는 발표는 원화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며 하락 압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해외주식투자 환전 등 달러 실수요가 더해지며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75.33 ~ 1386.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1.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5원 ↑
	■ 美 다우지수 : 43968.64, -224.48p(-0.5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9.2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4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